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산 수단의 자본가 소유주들을 위해 일하기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스미스"의 예부터 보자. 스미스는 직업이 없고 생산 수단이 없다.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맨손밖에 없다. 분명히 스미스의 생산성은 0에 가까울 것이다. 기껏해야 채소 몇 개와 작은 동물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이용하여 작은 공예품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일 것이다.

그와 그의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미스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본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는 판매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자본재를 획득하거나, 자신의 노동과 임금을 교환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제공하는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자본가가 제공하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이점은 스미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한다.

1. 자본가에 의해 제공되는 자본재는 노동자의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본가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거나 덜 생산적인 자본재를 얻게 된다. 자본가가 제공하는 높은 생산성은 노동자가 스스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얻게 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할 것이다.
2. 자본가를 위해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노동자는 즉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수입을 얻기 위해 생산 과정의 완성과 완제품 판매를 기다려야 하는 대신에,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즉시 수입을 제공한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은 완제품이 가져오는 수입에 대한 선지급금이다.
3. 자본가는 잠재적인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이 생산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자금(또는 그들이 상환해야 할 차용 자금)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요컨대, 임금 지불제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완제품이 팔리기도 전에 임금을 수령하고, 자본가에게 투자 손실의 위험을 전가할 수 있게 해준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의 요건은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니라 자연의 성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굶을 자유"라는 비평은 잘못됐다. 더 나아가, 심지어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three-ways-capitalists-make-workers-better>